



2021 Vol. 52

가치 있는 의정, 구민과 같이하는 서구의회

서구의회보

INCHEON SEOGU COUNCIL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서진 노을종 및 불꽃놀이

가치 있는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서구의회보

Incheon Seogu Council

SEO-GU
COUNCIL 2021_Vol. **52**



CONTENTS

- | | | | |
|-----------|--------------------|-----------|---------------|
| 01 | 서구의회 연혁 | 34 | 구청질문 및 답변 |
| 02 | 서구의회 의장 인사말(신년사) | 38 | 의원연구단체 |
| 05 | 제8대 서구의회 구성현황(후반기) | 44 | 의정칼럼 및 인터뷰 |
| 09 | 서구의회 회기 운영 현황 | 64 | 언론으로 보는 서구의정 |
| 16 | 결의안 | 79 | 의정포토 |
| | | 93 | 의회 방청 및 청원 안내 |

통 권 제52호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발행일 2021년 12월
편집인 의장 송준규
주소 서구의회 사무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Tel. 032-560-5850-60

본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하며,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회보는 인터넷(www.seo.incheon.kr/family)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회 연혁

1990

- 1990. 12. 31 지방자치법 개정
- 1991. 03. 26 초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선거
- 1991. 04. 15 제1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개원(의원정수 21명)
- 1995. 01. 01 인천직할시 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개칭
- 1995. 06. 27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
- 1995. 07. 11 제2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의원정수 24명)
- 1998. 06. 04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1998. 07. 07 제3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의원정수 13명)

2000

- 2002. 06. 13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2002. 07. 08 제4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의원정수 14명)
- 2006. 05. 31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2006. 07. 04 제5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의원정수 14명)

2010

- 2010. 06. 02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2010. 07. 07 제6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의원정수 14명)
- 2014. 06. 04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2014. 07. 07 제7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의원정수 16명)
- 2018. 06. 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2018. 07. 02 제8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의원정수 17명)

2020

- 2020. 12. 0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제8대 서구의회 의장 인사말 [신년사]

송 춘 규 인천서구의회 의장



서구의회 의장 송 춘 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있고, 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 흔들리는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두 어깨에 놓였던 무거운 임무들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의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8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제8대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포부와 이상을 항상 가슴 한 켠에 자리잡고 지역발전과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성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서구발전과 새로운 9대 의회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여러분!

제8대 서구의회는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의 꽃인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를 전문적으로 운영해왔고,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특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제8대 의회는 자치입법권에 해당하는 조례·규칙안 385건 중 224건 58%가 의원발의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인 주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왔고, 구정현안과 문제점을 되짚는 행정사무감사에서 1,118건을 시정·건의하여 제7대 의회 729건과 비교해볼 때 153% 증가한 것을 볼 때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24건의 구정질문과 36건의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결의안,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서구 유치 촉구 결의안, GTX-D 서울 직결 등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원안 반영 촉구 결의안 등 총 61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구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의회의 전문성과 의원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시의 대형 국·시책 사업 70% 이상이 추진 중에 있고, 인천에서 인구와 예산이 가장 많아 기존 상임위원회 조직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환경과 교통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경제위원회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높이고자 의원연구단체를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3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수집과 정책대안의 개발, 관련 의안 및 연구과제 수행 시 자문을 받아 입법 및 정책역량이 강화됐습니다.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의회로 도약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주민참여가 강화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한층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의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해 더욱 냉철한 시각으로 진정 구민만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2022년 4명, 2023년 4명씩 충원하여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총2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제·개정했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서구의회는 올해도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 모두가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모든 의정활동의 목표를 구민의 행복에 두고,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장 송 춘 규



제8대 서구의회 구성현황 (후반기)

의장/부의장



송춘규 의장
(청라 1·2·3)



최규술 부의장
(오류왕길, 연희, 검암경서)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수: 5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3)
- **소관사항**
 -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위원회 심사 등



김명주 위원장
(검단, 불로대곡)



김미연 부위원장
(가정3, 석남1·2·3)



정진식 위원
(오류왕길, 연희, 검암경서)



최은순 위원
(비례대표)



김이경 위원
(비례대표)



자치행정위원회

- **위원수: 6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4)
- **소관사항**
 - 감사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미래기획실, 자치행정국, 출장소,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한승일 위원장
(가좌 1·2·3·4)



최은순 부위원장
(비례대표)



이의상 위원
(검단, 불로대곡)



강남규 위원
(오류왕길, 연희, 검암경서)



정인갑 위원
(가정1·2, 신현원창)



김이경 위원
(비례대표)

복지도시위원회

- **위원수: 5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3)
- **소관사항**
 -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 사무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정영신 위원장
(가정3, 석남1·2·3)



권동식 부위원장
(가좌 1·2·3·4)



심우창 위원
(원당, 당하)



최규술 위원
(오류왕길, 연희, 검암경서)



김동익 위원
(청라 1·2·3)



환경경제위원회

- **위원수: 5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3)
- **소관사항**
 - 환경안전국, 경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 사무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이순학 위원장
(원당, 당하)



정진식 부위원장
(오류왕길, 연희, 검암경서)



김명주 위원
(검단, 불로대곡)



공정숙 위원
(가정1·2, 신현원창)



김미연 위원
(가정3, 석남 1·2·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선거구별 의원현황

선거구	해당동	의원
서구 가 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김명주 이의상
서구 나 선거구	원당동, 당하동	이순학 심우창
서구 다 선거구	오류왕길동, 연희동, 검암경서동	정진식 강남규 최규술
서구 라 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송춘규 김동익
서구 마 선거구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정인갑 공정숙
서구 바 선거구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정영신 김미연
서구 사 선거구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한승일 권동식
서구 비례대표		최은순 김이경



제8대 서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명단

연번	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1	의장단	의장	송춘규 의원	
2		부의장	최규술 의원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	
2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	
3		위원	정진식 의원	
4		위원	최은순 의원	
5		위원	김이경 의원	
1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승일 의원	
2		부위원장	최은순 의원	
3		위원	이의상 의원	
4		위원	강남규 의원	
5		위원	정인갑 의원	
6		위원	김이경 의원	
1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신 의원	
2		부위원장	권동식 의원	
3		위원	심우창 의원	
4		위원	최규술 의원	
5		위원	김동익 의원	
1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순학 의원	
2		부위원장	정진식 의원	
3		위원	김명주 의원	
4		위원	공정숙 의원	
5		위원	김미연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현황



회기운영

구분	회기별	개회일	폐회일	회기일수
제8대	제245회 임시회	2021. 7. 6.	2021. 7. 6.	1일
	제246회 임시회	2021. 9. 3.	2021. 9. 10.	8일
	제247회 임시회	2021. 10. 12.	2021. 10. 21.	10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19.	2021. 12. 14.	26일

조례안 및 의안처리

구분	발의·제출			가결			부결	기타	
	계	의원	구청장	원안	수정	채택			
계	90	48	42	73	12	1	1	3	
조례	소계	61	35	26	51	7	-	1	2
	제정	23	19	4	18	2	-	1	2
	개정	38	16	22	33	5	-	-	-
	폐지	-	-	-	-	-	-	-	-
기타안건	29	13	16	22	5	1	-	1	



제2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안심사 결과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2건

의안 번호	소 관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회의 결과
	위원회	담당부서			
3085	의회운영위원회 [1]	의회사무국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이경 의원	원안 가결
3086	자치행정위원회 [1]	기획예산담당관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안심사 결과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22건, 찬성의견 채택 1건, 보류 1건

의안 번호	상임위원회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회의 결과
3101	자치행정 위원회 [7]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091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남규 의원	원안가결
310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	보 류
3092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인갑 의원	원안가결
3100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강남규 의원	원안가결
3105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093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승일 의원	원안가결



의안 번호	상임위원회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회의 결과
3106	복지도시 위원회 [13]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094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은순 의원	원안가결
3095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정인갑 의원	원안가결
3096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은순 의원	원안가결
3107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108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108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110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111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097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남규 의원	원안가결
3112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117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서구청장	찬성의견 채택
3116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113	환경경제 위원회 [4]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114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115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가결
3098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원안가결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안심사 결과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2건, 부결 1건, 보류 1건

의안 번호	상임위원회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회의 결과
3129	자치행정 위원회 [8]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규 의원	원안 가결
3120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21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22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30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한승일 의원	수정 가결
310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 (보류안건)	수정 가결
3123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24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06	복지도시 위원회 [4]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정숙 의원	부결
3094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095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096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13	환경경제 위원회 [4]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학 의원	원안 가결
3114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학 의원	원안 가결
3115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정숙 의원	보류
3098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 결과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37건, 수정가결 10건, 현황보고의 건 1건

의안 번호	소 관 위원회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회의 결과
3159	의회운영 위원회 [2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명주 의원	원안 가결
3160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주 의원	원안 가결
316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주 의원	원안 가결
316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원안 가결
316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원안 가결
316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은순 의원	원안 가결
316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은순 의원	수정 가결
316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진식 의원	원안 가결
316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진식 의원	원안 가결
3168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식 의원	수정 가결
316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김명주 의원	원안 가결
317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김명주 의원	원안 가결
317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김미연 의원	원안 가결
317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김미연 의원	원안 가결
317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이경 의원	수정 가결
317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김미연 의원	수정 가결



의안 번호	소 관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회의 결과
	위원회			
3175	의회운영 위원회 [2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최은순 의원	원안 가결
317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최은순 의원	원안 가결
317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최은순 의원	수정 가결
3178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정진식 의원	원안 가결
317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정진식 의원	원안 가결
318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김이경 의원	수정 가결
318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김이경 의원	원안 가결
318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안	김이경 의원	원안 가결
3141	자치행정 위원회 [8]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45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46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수정 가결
3147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48		「지방자치법」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89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인갑 의원	수정 가결
3192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9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최은순 의원	원안 가결



의안 번호	소 관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회의 결과
	위원회			
3149	복지도시 위원회 [9]	서구·검단노인복지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50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51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수정 가결
315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53		2022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83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수정 가결
3184		인천광역시 서구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정진식 의원	원안 가결
315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서구청장	90일 이내 해제권고
3158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85	환경경제 위원회 [7]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정숙 의원	원안 가결
3155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56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86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원안 가결
3154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구청장	원안 가결
3187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순학 의원	원안 가결
3188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정숙 의원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선일보 구독 취소 결의안

정진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87

발 의 의 원 정진식 의원
찬 성 의 원 강남규 의원, 심우창 의원, 이순학 의원, 최은순 의원,
김동익 의원, 김명주 의원, 정영신 의원, 정인갑 의원

1. 주 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태도에 분노하며 조선일보 구독을 취소한다.
- 국민을 양극화하는 왜곡된 기사 게재와 상습적 사과를 반복하는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2.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라는 성매매 기사를 다루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당사자의 반발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언론에 의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보호받아야 할 가족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는 이런 이미지 사용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렇게 사과 한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악의적 보도 태도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조민씨 세브란스 피부과 청탁'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도한 전력이 있다. 또한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4건의 범죄 기사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 조선일보는 이런 모든 행위가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같은 실수가 이렇게 반복될 수는 없다. 현 정부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선일보의 증오심이 지면에 노출된 결과일 뿐이다. 언론사가 건전한 비판의 차원을 넘어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증오를 부추기려 한다니 무서운 일이다. 신문이 사회의 소금이 아니라 흉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이런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태도에 분노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신문의 소비자로서 조선일보 구독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최근 남양유업은 연이은 갑질과 과장 광고에 화가 난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오너의 퇴출로 이어진 바 있다. 신문도 하나의 상품이다. 그 상품이 불량하면 안 사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다. 서구의회에서는 조선일보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
- 조선일보는 인천시의회에서부터 이어진 우리 서구의회의 구독취소가 가지는 의미를 깊게 새기길 바란다. 큰 뱀이 잘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법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선일보 구독 취소 결의문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라는 성매매 기사를 다루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당사자의 반발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언론에 의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보호받아야 할 가족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는 이런 이미지 사용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렇게 사과 한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악의적 보도 태도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조민씨 세브란스 피부과 청탁'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도한 전력이 있다. 또한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4건의 범죄 기사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이런 모든 행위가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같은 실수가 이렇게 반복될 수는 없다. 현 정부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선일보의 증오심이 지면에 노출된 결과일 뿐이다. 언론사가 건전한 비판의 차원을 넘어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증오를 부추기려 한다니 무서운 일이다. 신문이 사회의 소금이 아니라 흉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이런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태도에 분노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신문의 소비자로서 조선일보 구독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최근 남양유업은 연이은 갑질과 과장 광고에 화가 난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오너의 퇴출로 이어진 바 있다. 신문도 하나의 상품이다. 그 상품이 불량하면 안 사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다. 서구의회에서는 조선일보를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조선일보는 인천시의회에서부터 이어진 우리 서구의회의 구독취소가 가지는 의미를 깊게 새기길 바란다. 큰 댐이 잘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법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조선일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태도에 분노하며 조선일보 구독을 취소한다.

하나, 국민을 양극화하는 왜곡된 기사 게재와 상습적 사과를 반복하는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2021년 7월 6일

정진식 의원 외 8명 일동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결의안

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99

발 의 의 원 강남규 의원
 찬 성 의 원 심우창 의원, 김미연 의원, 최은순 의원, 김동익 의원,
 김명주 의원, 정진식 의원, 공정숙 의원, 최규술 의원,
 이순학 의원, 정영신 의원, 정인갑 의원, 송춘규 의원,
 한승일 의원, 권동식 의원, 이의상 의원, 김이경 의원

1. 주 문

-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종료를 즉각 선언하라.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을 이해하라.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대전환의 시대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

2. 주요내용

-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최대 규모라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과 재산권 등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서구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민국 정부와 인근 지자체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노력에 공감해야 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시한인 2025년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대해 절실히 요구하는 바이다.
- 현행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여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를 촉구한다.



-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며,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물 감량을 극대화하고 발생 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사용, 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길은 더 이상 늦춰서도 늦을 수도 없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며, 양보와 타협 없이 지금 당장 종료에 대한 사전준비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인천 서구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 쓰레기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감량, 재활용, 소각 후 매립량 최소화를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로드맵을 제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결의문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환경정의와 공정의 실천이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과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쓰레기 관리정책과 서울시, 경기도의 쓰레기 문제 인식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진국형 쓰레기 정책인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는 가히 '야만적인 정책'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겁한 침묵'을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인천서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매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그 인근에 난립한 폐기물 전처리업체 등으로 인해 각종 악취와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반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은 후진국형 쓰레기 정책을 종식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서 있다. 얼마나 더 인천서구 주민들에게 '야만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려 하는가?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최대규모라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국민이면 누구나가 누려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과 생활권, 재산권 등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서구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민국 정부와 인근 지자체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노력에 공감해야 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인 2025년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다시 한번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해놓고 국가와 지자체들은 무엇을 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자원순환 선진화 즉,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물 감량을 극대화하고

발생 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사용, 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는 쓰레기는 친환경적으로 소각하여 소각재만 매립 하는 정책이 정답일 것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기후 위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 시대적 요구라는데 이의를 다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여전히 보상과 인센티브를 내걸고 '매립지연장'을 강요하고 '매립지종료 문제'를 지자체 간의 갈등 구조로만 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처리 원칙이 답이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인천시의 노력처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바란다.

또한 발생지처리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천시와 서구의 노력이 옳은 길이며 바른길임을 인식하기 바라며, 동시에 발생지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발생지처리 원칙 말고 서구주민은 어떠한 보상 및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코로나19의 창궐을 통해서 인류가 배운 것처럼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더 이상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 할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양보와 타협 없이 그리고 지금 당장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준비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종료를 즉각 선언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대전환의 시대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

하나,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2021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37

발 의 의 원 정인갑 의원
 찬 성 의 원 이순학 의원, 공정숙 의원, 김명주 의원, 김미연 의원, 강남규 의원, 최은순 의원, 한승일 의원, 이의상 의원, 심우창 의원, 권동식 의원, 김동익 의원, 최규술 의원, 정영신 의원, 김이경 의원, 정진식 의원, 송춘규 의원

1. 주 문

- 정부는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여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함으로써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2. 주요내용

-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 역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꾸준히 직면하고 있다.

- 최근 인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K-바이오 랩허브 구축도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도시로 급부상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천이 글로벌 시대 바이오사이언스 산업의 주요 도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 이에 우리 인천서구는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과, 인천이 글로벌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인천의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개선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신종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크다. 이에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절실한 지역이며,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6번째이며, 강화·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인천 유일의 공공병상인 인천의료원은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꿈꾸는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의 보건의료의 현주소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한다.

최근 인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K-바이오 랩허브 구축도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도시로 급부상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천이 글로벌 시대 바이오사이언스 산업의 주요



도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김교홍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법 개정애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인천대학교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인천시민, 기관, 시민단체, 학교, 기업체, 공직사회가 참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하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여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 기관 등에서 종사함으로써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1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최은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36

발 의 의 원 최은순 의원
 찬 성 의 원 이의상 의원, 심우창 의원, 김동익 의원, 최규술 의원,
 정영신 의원, 권동식 의원, 정인갑 의원, 한승일 의원,
 강남규 의원, 김이경 의원, 김명주 의원, 공정숙 의원,
 김미연 의원, 이순학 의원, 정진식 의원, 송춘규 의원.

1. 주 문

- 서구의회는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여성과 아동들이 교육받고 일할 권리, 표현과 이동의 자유 보장 등 여성·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서구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분야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서구의회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 주요내용

-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2021년 6월경부터 아프간 일대에서 일어난 미국-아프간 전쟁 후 아프간 전역을 비롯하여 지난 8월 15일 수도 카불까지 장악하면서 '이슬람 수장국' 재건을 선포하며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잔혹한 폭력사태로 시민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 과거 탈레반의 1996~2001년 통치 시절에 모든 대중매체, 타 종교, 대중문화, 가치관, 복식 등 모든 자유를 모조리 금지하면서 국민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타 및 구금, 사형 등을 당했으며, 특히 소녀들은 교육받을 수 없었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었다. 즉 여성의 근로, 복장 자유권 등 모든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의료, 교육, 법률의 권리도 빼앗았다.
- 20년 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은 지난 17일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율법이 보장하는 한에서 여성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 밝히면서 여성과 시민에 대해 온건한 통치를 내세웠지만, 여성인권을 존중하는 '포용적 리더십'을 선언한 당일 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레반 무장세력의 총격을 받고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 또한, 학교가 문을 닫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으며, 남자 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있다.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 민족을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과도 내각을 구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에 맞서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탈레반은 여성 시위대, 국기 시위대 등에도 발포하여 무고한 사망자가 나왔다.
- 이는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인류 문명의 수치임이 자명하다. 이에 서구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동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2021년 6월경부터 아프간 일대에서 일어난 미국-아프간 전쟁 후 아프간 전역을 비롯하여 지난 8월 15일 수도 카불까지 장악하면서 '이슬람 수장국' 재건을 선포하며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잔혹한 폭력사태로 시민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과거 탈레반의 1996~2001년 통치 시절에 모든 대중매체, 타 종교, 대중문화, 가치관, 복식 등 모든 자유를 모조리 금지하면서 국민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타 및 구금, 사형 등을 당했으며, 특히 소녀들은 교육받을 수 없었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었다.

즉 여성의 근로, 복장 자유권 등 모든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의료, 교육, 법률의 권리도 빼앗았다.

당시를 경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탈레반 재집권에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억압적 과거로의 회귀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년 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은 지난 17일 카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율법이 보장하는 한에서 여성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 밝히면서 여성과 시민에 대해 온건한 통치를 내세웠지만, 여성인권을 존중하는 ‘포용적 리더십’을 선언한 당일 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레반 무장세력의 총격을 받고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또한, 학교가 문을 닫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으며,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있다.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 민족을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과도 내각을 구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에 맞서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탈레반은 이 여성 시위대, 국기 시위대 등에도 발포하여 무고한 사망자가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인류 문명의 수치임이 자명하다. 이에 서구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동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여성과 아동들이 교육받고 일할 권리, 표현과 이동의 자유 보장 등 여성·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분야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망언 규탄 결의안

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91

발 의 의 원 강남규 의원
찬 성 의 원 이의상 의원, 최은순 의원, 정진식 의원, 김미연 의원,
김명주 의원, 김이경 의원, 정영신 의원, 심우창 의원,
공정숙 의원, 이순학 의원, 송춘규 의원, 김동익 의원,
최규술 의원, 정인갑 의원, 권동식 의원, 한승일 의원

1. 주 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서구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받은 서구주민들의 매립지 종료 노력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인천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라.

2. 주요내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청현 사장은 11월 4일 한 언론 칼럼을 통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천시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주장했다.
-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을 무시한 망언이며 이에 대해 서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서구의회는 가장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 또한 신 사장은 "신규매립지를 공모하면서 밝힌 지원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매립장 잔여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경기도가 행정구역인 제4매립장을 먼저 사용하는 대안은 어떨까."라며 3매립장을 넘어 4매립장까지 사용해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을 주장했다.

- 오히려 서울을 위해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서구주민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하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칼럼에서 주장한 망언에 대해 서구주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환경전문가인 신사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 할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떠한 양보와 타협 없이 지금 당장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준비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망언 규탄 결의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은 11월 4일 한 언론 칼럼을 통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천시의 교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대 규모라는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받아온 서구 주민들의 매립지 종료 노력을 무시한 망언이다.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겠다는 소박한 꿈과 환경정기가 실현되어 공정한 세상에서 공정하게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했던 서구 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

서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2600만 명이 매일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30년간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그 인근에 난립한 폐기물 전처리업체 등으로 인해 각종 악취와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와 건강권 재산권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신 사장은 '수도권 매립지 확보 현실적 대안'이라는 칼럼의 제목으로 수도권 환경공동체를 주장하며 '인천시민들의 피해를 이유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를 중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신 사장은 "신규매립지를 공모하면서 밝힌 지원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매립장 잔여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경기도가 행정구역인 제4매립장을 먼저 사용하는 대안은 어떨까."라며 3매립장을 넘어 4매립장까지 사용해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을 주장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을 무시한 망언이며 이에 대해 서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서구의회는 가장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신사장은 해당 칼럼에서 “수도권은 하나의 환경 공동체”라고 주장하며, “인천시민이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 받는 반면, 서울시민 역시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온 차들의 배출가스로 고통 받고 경기도민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도물 공급을 위한 팔당호 상수원 규제로 고통 받는다”며 “그래서 2천 600만 수도권 주민이 공기, 물, 쓰레기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오염자 부담원칙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신사장이 수도권 3개 시·도가 서로 주는 피해로 인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환경공동체론’의 예시 중 신사장이 칼럼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의 웅진군 영흥도와 서구 일대 발전소들이 생산하는 전력으로 인천 지역 에너지 자립도는 전국 1위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대부분이 서울로 공급된다. 또한 한강에서 떠밀려 오는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은 고스란히 인천 앞바다로 퍼져나가 오염시키고 있다.

수도권 환경 공동체의 공존·공영을 위해 서울시는 공기, 경기도는 물, 인천시는 쓰레기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신사장의 주장에서 과연 서울의 “공기”와 인천의 “쓰레기”가 등가에 놓을 수 있는 가치판단 문제가 아닐뿐더러 신 사장이 주장한 ‘현실적 대안’의 근거로도 한참을 벗어난 궤변수준이다.

오히려 서울을 위해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서구주민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하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칼럼에서 주장한 망언에 대해 서구주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환경전문가인 신사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 할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떠한 양보와 타협 없이 지금 당장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준비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사장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 출신으로서 환경정의를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서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서구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서구주민들의 매립지 종료 노력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인천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라.

2021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

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94

발 의 의 원 김명주 의원
 찬 성 의 원 정영신 의원, 송춘규 의원, 최규술 의원, 강남규 의원,
 김이경 의원, 이의상 의원, 권동식 의원, 김동익 의원,
 심우창 의원, 정인갑 의원, 최은순 의원, 공정숙 의원,
 정진식 의원, 김미연 의원, 이순학 의원, 한승일 의원

1. 주 문

- 기획재정부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이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하라.
- 국토교통부는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시행 시 검단 구간을 조기 개통하라.
- 인천시는 구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구민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하라.

2. 주요내용

- 인천2호선 불로 연장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올해 3분기 예비타당성조사에 미반영되었다.
- 이에 인천시는 당초 세 개 역사에서 한 개 역을 제외하고 노선도 단축하며 불로역부터 고양시 일산까지 연장하는 구간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사업을 변경한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으로 독정역에서 일산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 자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을 수 있으나 구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인천시 사업으로 먼저 추진될 사업이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지역의 활력을 기대했던 불로지구 주민들과 검단신도시 2단계 지역 입주민들에게 지하철 이용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되어 버린 것이다.

- 지난 11월 24일 서구 을에 신동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박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기획재정부의 의지에 따라 통합 사업으로 변경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초래된 지역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사업 시행 시 독정역에서부터 연장되는 검단 구간을 우선 개통하여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서북부 주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인천2호선 불로 연장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값이 미달하여 가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2호선 불로 연장사업은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갈라져 서구 불로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 있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세 개 역사를 연장하는 사업에서 한 개 역을 제외하고 노선도 단축하며 뒤를 잇는 불로역부터 고양시 일산까지 연장하는 구간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사업을 변경한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으로 독정역에서 일산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얼핏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 자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을 수 있으나 서구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인천시 사업으로 먼저 추진될 사업이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그나마 지역의 활력을 기대했던 인

천시 경계에 있는 불로지구 주민들과 검단신도시 2단계 지역 입주민들에게 지하철 이용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다행히 지난 11월 24일 서구 을에 신동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김포 갑의 김주영 의원, 고양시 병에 홍정민 의원, 고양시 정에 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박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서구의 신동근 국회의원은 불로지구를 포함한 인천2호선 불로연장선의 기존역사를 복원해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지역 정치권에서도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독정에서 일산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사업의 지연으로 초래된 지역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의지에 따라 통합 사업으로 변경된 만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책임지고 개통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시행 시 독정역에서부터 연장되는 검단 구간을 우선 개통하여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서북부 주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서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이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시행 시 검단 구간을 조기 개통하라.

하나, 인천시는 구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구민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하라.

2021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서구청장 답변



Q. 김명주 의원 → A. 서구청장

Q. 김명주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검단출장소라는 다른 지역에서 사례가 흔치 않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검단출장소는 검단동을 비롯하여 최근 분동 된 아라동까지 2021년 10월 기준 총 7개 동, 약 17만 명의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계획에 따르면 추후 16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고 그 밖에 민간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사업 지구까지 포함하면 50만명을 육박하는 인구가 검단 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업무 공간에 한계가 있는 검단출장소를 이전하여 신속하고 기능과 역할을 향상시켜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경계에서 김포시 경계로 이어지는 교량이지만 실제

로는 우리 서구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교량입니다. 불로동은 평일 출퇴근 시간이면 일산대교를 이용하기 위해 지나는 차들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엄청난 재산손실 등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구 주민들의 일산대교 이용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가에 반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구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함께 힘을 보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서구청장

첫 번째 질문하신 검단지역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검단출장소 조직 확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단지역의 폭발적인 인구 유입과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정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소의 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서구 전체 인구 증가로 본청 조직

도 늘려야 하면서도 출장소 등 집단 조직을 확대해야 하기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특례대상 시군 구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내년 법 시행 이후 서구청 전체 조직의 강화 방안을 만들어 가면서 집단 지역 조직도 확대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의 정책건의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사의 신축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는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경기도청인 만큼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불로동 주민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천시와 일산대교 무료 통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방안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Q. 김미연 의원 → A. 서구청장

Q. 김미연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를 구축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의심이 되어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서는 2020년도에 가마스쿠스 대표 소리석씨를 서구 시설관리공단 비상근직 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마스쿠스와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5건, 7천6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도에는 14억에 가까운 스마트패트를 구축사업 예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마트패트를 구축사업의 과업들을 살펴보면 드론으로 과업을 시행해서 예산을 들인 만큼의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거나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사업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년도 사업 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그것도 용역으로 세웠다는 것이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 용역 제안 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에는 항공, 환경, 산림, 건축, 토목, 통계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공고가 되었는데 실제 시행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5명 중 4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에 합목적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데 맞다고 보십니까? 또한 지난 3월 인천시 녹지정책과에서 산불 진화 현장 구역 내 무인비행장치 제인 금지 공문이 왔는데 우리 과업에는 산불 진화 과업이 있습니다. 이는 상위 부서의 공문조차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안내 방송으로 3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헬세인 세금은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구축 사업 13억7천6백만원은 헛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 지출에 대하여 우리 55만 서구 주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서구청장

먼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드넓은 산림, 하천 등 자연환경 일체를 사람이 관리하는 것에는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 지정 7대 신사업인 드론을 활용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코로나19 비대면 홍보 및 계도, 기초자료 생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선도적 구정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서구를 조성하기 위해 드론 스마트패트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최초로 10개 부서 22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세부 과업의 감독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스마트패트롤 사업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극심한 전파로 방역 및 비대면 활동이 중요한 시기에 인적 접촉 없이 안내가 가능한 스피커 드론의 장점을 활용하여 코로나 방역 지침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질병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국무총리의 서구 방문 시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고 인천시 수범 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입산자 실화에 대하여 서로이음길 안내방송 실시로 2020년에는 산불이 5건 발생하였으나, 2021년 현재는 산불 발생 건수 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서로이음길 안내방송 중인 드론이 산림 인접지인 검단 대곡동 화재를 조기 발견하고, 차량 진입이 늦어지는 현장에서 비행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난 대응에 있어 드론의 실효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지점에서 넓은 면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을 활용하여

서구의 4대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20년에는 하천 어류 폐사 사건이 4건 발생하였으나 2021년에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말라리아에 대하여도 방제 드론을 활용하여 방역한 결과 드론 방역 미실시 지역 대비 개체수가 약50%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하여 대기환경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적발 등의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관련 증빙 자료 제출 등이 잘 안되고, 사업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업체의 대표가 시설관리공단 등의 비상임이사인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용역평가위원회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 당일 교수와 전문가 2명이 불참 통보를 하여 5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드론 스마트패트롤 사업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 작업 및 내부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보완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또한 제출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보완·보강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세분화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Q. 한승일 의원 → A. 서구청장

Q. 한승일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우리 서구의 성적표를 보면 대내적으로 지방공기업 열린혁신 평가 우수기관 1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1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1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부문 1위,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전국 2위, 민선 7기 최초 추진사업 26건, 수상 내역 86건, 인천 최초 추진사업 41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인천 지역의 다른 구보다 재정 수요는 많이 요구되지만 재정 건전성은 물음표입니다.

이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과 현재 어떤 제도와 정책을 운영 중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와 함께 수도권매립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운영 및 가스를 판매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A. 서구청장

우리 구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세입 측면에서는 기초 지자체 재원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철저한 체납액 관리를 통해 구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측면으로 우리 구는 어느 때보다 집행부 내부 심사 절차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규 투자사업, 행사-축제성 사업 등을 편성하려면 사업성 검토를 위한 별도의 사전심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각각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 집행부, 의회의 3중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행적 예산 편성에서 탈피하고, 사업 평가를 근거로 성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여 사업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



최규술 부의장

반갑습니다.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 대표의원 최규술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나침반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 재조명하고 뿌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라 생각하여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인천 서구의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서구의 전통적 뿌리문화를 전승·보존 및 연구하고 의회의 주도하에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문화 저변을 확대시켜 인천시 서구 문화 발전 및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민족의 역사를 잊지 않고 복원·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연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체 기본현황

단체명 :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

목적 : 인천광역시 서구 선조들의 뿌리문화 발굴 및 보존 방안 연구

활동기간 : 2020. 5. 1. ~ 2021. 10. 30.

대표의원 : 최규술

참여의원 : 심우창, 이익상, 김미연, 최은순



활동사진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김미연 의원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대표의원 김미연입니다.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의회가 함께한 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서구만의 문화환경 특색에 맞는 주민친화적 문화예술도시로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문화도시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지속가능한 법정 지정도시를 의미합니다.

구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상업,공업,농업 등 동별 특성이 다양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인천 서구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서구만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문화예술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체 기본현황

- 단체명 :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 목적 : 인천광역시 서구만의 문화환경 특색에 맞는 주민친화적 문화예술도시 설계 연구
- 활동기간 : 2020. 7. 2. ~ 2021. 10. 30.
- 대표의원 : 김미연
- 참여의원 : 최규술, 정영신, 강남규, 권동식, 최은순



활동사진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 지역공동체 협치 발전 연구회



김 동 익 의원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 지역공동체 협치 발전 연구회 대표의원 김동익입니다.

협치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민간과 관이 협력하여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치의 핵심 요소는 행정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자치력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관이 주도했던 구정(區政)에 주민들 즉 지역공동체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과정으로 행정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행정이 시대의 패러다임인 만큼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와의 협치를 통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체 기본현황

- 단체명 : 인천 서구 지역공동체 협치 발전 연구회
- 목적 : 주민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공동체의 협치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 활동기간 : 2021. 3. 15. ~ 2021. 10. 30.
- 대표의원 : 김동익
- 참여의원 : 송춘규, 한승일, 이익상, 권동식



활동사진





“공공의료 강화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 주춧돌이다”



인천시는 가장 먼저 근대사의 여명을 맞이한 곳으로 대륙 문물이 한반도에 전파되고 한반도 문물이 해외로 나가는 중요한 관문이며, 과거 해상으로 시작해 현재 항공을 통해 전 세계와 교류하는 도시로 향후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환경, 관광, 의료,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세계화의 능동적 변화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또한 스포츠산업과 연계해 도시환경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도시 숲을 조성하는 녹지 정책이 반영돼 시민들에게 미래형 도시 인천을 구현하고 있으며,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천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도시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건강을 달성하고자 창의성을 발휘해 공공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건강도시 인천’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구의회 의장
송 춘 규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장기간 지속 확산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의 혼란에 빠트렸으며 지금까지도 제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확행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또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현재 치료와 예방을 병행하며 백신을 접종하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돌연변이의 추가적인 발생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인천은 모든 길의 시작인 중요한 관문으로 향후 전염성 질환에 대비하고 항공 재난 사고 등 국가의 대규모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건강도시로 완성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20년 6월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 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다'에 동의한 비율이 코로나 이전 22.2%에서 코로나 이후 67.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매우 증대되고 있다. 왜 지금 공공의료인가라는 자문을 해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의료인프라 확충과 감염병 중환자 및 심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지역별 필수 의료 제공 가능한 병원 확충으로 국민 의료 이용의 형평성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 제시 및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 분만 등의 공급 부족으로 지역별 건강 결과 차이가 심한 경우와 필수적인 의료기관 공급 부족으로 사망률 격차가 생기는 지역과 전염성 감염질환 대응 등에 대해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한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협 증가, 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체계 강화,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적 부담 심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공공의료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필수분야 보건의료의 지역간 균형 공급 및 부족한 공공의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서 공공의료 확충이 공허한 구호가 돼서는 안 된다. 인천지역의 제2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응원하며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 반영, 철저한 준비로 국민들의 건강권 회복에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희망해 본다.

▲ 출처 : 기호일보



“1급 발암물질 제거 외면하는 건 돈 때문에 기업윤리 저버리는 것”

인터뷰 ‘아스콘공장 벤조a피렌 제거장치 설치 주장’ 최규술 서구의회 부의장



서구의회 부의장
최규술

인천 서구의회 최규술 부의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스콘공장 벤조a피렌 제거장치 의무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규술 부의장은 “환경부가 지난 2020년 1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단속이 미흡하다”며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17개의 아스콘 공장이 있는 서구부터 벤조a피렌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들이 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일보는 21일 최규술 부의장을 만나 벤조a피렌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벤조a피렌의 위험성은.

“환경부가 법 규정까지 개정해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 벤조a피렌이 검출되면 허가 취소하겠다는 것을 보면 발암물질 벤조a피렌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알 수 있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 벤조a피렌 검출로 전국에서 74명이 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벤조a피렌으로 인한 암 환자 확진 판정소식은 발병 지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암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서구의 금호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근 아스콘공장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악취로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 금호마을과 검단산업단지 내 아스콘공장 간 거리는 400m에 불과하다.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모든 질병은 사전 예방대책이 중요하다”

아스콘공장 현황은.

“아스콘 공장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를 골재와 섞어 아스콘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강한 악취와 암을 유발하는 벤조a피렌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물질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아스콘공장이 전국에 533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중에 인천에 20개 공장이 있고, 서구에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7개가 있다. 법적으로 용도가 타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쾌적하고 계량화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적인 대책을 세워 벤조a피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암 공포에 떨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조a피렌 제거장치의 효율성은.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의 경우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 대기오염 물질 제거장치가 발명됐다고 한다. 벤조a피렌을 제거함으로써 암 유발 방지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수 아스콘공장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제거 장치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가 90%의 예산을 지원해 아스콘공장에 특정 오염물질 제거 장치를 시범 설치하겠다는 소식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지원금을 조기에 집행해 아스콘공장 환경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클린서구’를 표방하는 서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아스콘공장에 대한 친환경 설비를 의무화한다면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벤조a피렌으로 인한 암 공포에서 해방되려면 몇 군데 시범 설치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국의 아스콘공장 모두 의무적으로 오염 물질 제거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경인일보



‘갈지자’를 넘어 몽니로 가는 ‘인천행정’



서구의회 의원
김미연

가좌1동 버스정류장을 놓고 인천시의 행정이 ‘갈지자’를 넘어 ‘몽니’로 가고 있다.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은 지역주민들의 발이 돼 주는 고마운 존재로 버스 정류장은 지역 교통에 중요한 근간이 되는 시설이다.

그런데 최근 가좌1동에 위치 해있는 버스정류장이 하루아침에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버스가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루아침에 주민들의 발이 없어진 것이다.

인천시는 정류장 앞에 목재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목재 적재 등의 과정에서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전하게 됐다고 말하며 정류장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상 어느 지자체에서 정류장 이전을 놓고 주민에 대한 어떠한 설명 없이 추진하는지 되묻고 싶은 상황이다.

게다가 목재 공장이 사유지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정류장 이용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목재 공장주가 이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데도 정류장을 옮겨버리는 황당무계한 모습을 보여줬다.

얼토당토않은 일방적인 정류장 이전에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서구는 철저히 패싱을 당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이전한 정류장을 유지한 채 정류장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 이마저도 진행되지 않았다.

주민설명회 없이 정류장을 이전해 놓고 사후 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이마저도 하지 않는 '갈지자' 행정을 보였던 시가 행정 오류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주민 몇 명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물은 뒤 적선하듯 정류장을 하나 더 신설해 주겠다는 원칙 없는 '몽니'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부 몇몇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적선하듯 정류장을 하나 더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세금에 대한 시의 잘못된 인식과 함께 행정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꼴이다. 일부에서는 정류장의 일방적인 이전과 관련해 혹시 모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고, 뜬금없는 정류장 신설 이야기에 행정 절차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정류장 신설이 필요하다면 이는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공론화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 청라소각장 폐쇄를 놓고도 상식에 맞지도 않고 원칙도 없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가 정류장을 놓고 또다시 '갈지자'를 넘어 '몽니'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류는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도 시는 행정 잘못을 덮으려 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은 정류장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제라도 정류장을 원위치시켜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 조직을 비롯해 경직된 조직을 비판할 때 주로 쓰이는 말로 지금 시 행정이 이와 같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옳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밀어붙이는 등 잘못에 대한 복지부동 자세를 견지한다면 이는 향후 인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출처 : 기호일보





2025

“2025년 매립지 종료, 꿈수가 아니길 바란다.”

과거에는 개건너로 불리며 인천에서도 오지로 낙인 찍혔던 서구가 이제는 인천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로 통하는 국제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구이자 동북아 허브 역할을 담당할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 그리고 검단신도시 개발로 지역의 중심을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
이 의 상

지금 인천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꼽는다면 서구가 우선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그만큼 서구는 인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개발 여지가 크고, 개발 밑그림을 통해 보듯이 서구의 발전상은 어느 도시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인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구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구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소각장 시설과 발전소, 정유시설뿐만 아니라 전국 구 단위 가운데 가장 많은 아스콘 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환경 공해 업체들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로 민원이 많다. 물론 법적으로 용도가 타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환경 공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특히 30여 년간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매립지로 힘들지 않도록 서구청장과 서구의회가 앞장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인천시장의 약속대로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될 수 없다는 것이 서구 주민들의 생각이다. 한마디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속도를 볼 때 인천시장이 2025년 약속한 매립지 종료 기간은 앞으로 3년이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종료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또다시 매립 기간 종료 약속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종료될 수 없는 상황에서 2025년 매립지 종료선언은 꿈수정책이라 본다. 이 꿈수정책을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55만 주민들과 함께 막아야 한다.

지금 서구 주민들은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이해 관계자들이 2025년 매립지 종료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2025년 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인천의 정치지도자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슈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상대를 공격하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지방선거가 돌아온다, 다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할 의지보다 또다시 정치공세만 펼치다 일단 책임 있는 위치에 오르면 적당히 둘러대며 임기를 채우는 식의 행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서구 정치인(구청장·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모두가 정당을 초월해 2025년 매립지 종료선언 약속을 지키겠다는 공동선언과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선언이 정치공세로 시작해 정치공세로 끝나는 것 아닌가 걱정돼 하는 말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나 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확실하게 종료하기로 합의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선언을 약속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 확실한 매립지 종료 방안을 제시해 서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란다.

▲ 출처 : 기호일보





『달리는 라디오, 투데이 핫뉴스』

김미연 의원 인터뷰

2020. 9. 14. TBN 경인교통방송



서구의회 의원 김미연

투데이 핫뉴스 앤 인터뷰

지난달 연수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철저한 전수조사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 서구의회의 김미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Q.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A.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Q.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연수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는 바람에 20대 장애인이 질식사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인천 장애인 학부모 단체들은 성명 내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A.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고, 아직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사건이 발생 하게 되면 급하게 종결시키려고만 하고 때로는 남 탓하기 바쁘고 구체적인 문제점 파악이나 대안을 만들지 않고 계속 방치만 해왔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인재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비롯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부터 우리 이용자 학대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대의 행위 또는 부정 운영에 선제적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사실 지난해 말에도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 있는 어린이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서 공분을 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 역시 이번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A.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우리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백여차례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사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축소시키고 은폐하려고만 했던 가해자와 담당 관리직 공무원의 태도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 자신이 의원이기 전에 저도 두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너무 울분이 났고 사회복지를 공부한 의원으로서 복지시

설 특히 우리 장애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우리 서구에는 또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신설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구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도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전수조사, 사회복지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자 특별교육 실시 등 이렇게 세가지 대안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Q. 네. 지금 사회복지특별조사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 곳입니까?

A. 사회복지특별조사위원회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어요 특히 각 지자체 모두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다 잘 아시겠지만 민·관이 함께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중 추천자와 구민 추천자 사법기관 종사자 부구청장 그리고 의회 의원 중에서는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의원 등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역할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소집해서 특별조사위원회와 수사 기관이 함께 문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고 사건 발생부터 사후 관리까지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불시 점검 및 현장 방문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조금 더 내실있는 관리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더 필요하겠습니다.

A. 네.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점검인지는 사실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회계 및 행정 감사를 통한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보면 서류에만 치중된 점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용자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면 조사도 하고 관리 감독 기관에서 불시 현장점검 그 다음에 감사 시준에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물론 그간 점검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은 이해가되지만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도를 바꿔서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내실을 쌓아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조금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제가 좀 많이 못 했는데 사실 지금 사회복지 기관에서 받고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지표에 맞춰서 시설 분야별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고요 종사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차등적인 교육을 이제는 받아야 된다고 이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케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생활이고요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이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끝으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인데 고마운 분들과 감사인사도 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도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Q.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서구의회 의장 송춘규

“기초의원 정당 공천 없애야 한다”

기초의회가 개원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공자는 서른살은 이립(而立)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바로 선다’는 뜻으로 이제는 기초의회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입지를 다지며 성장해 왔다. 이제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다. 근본적으로 기초의회는 국회와 다르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감시·감독·지원함으로써 그 효과가 곧바로 지역 주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목표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같은 목표설정에서 따라 기초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고 주민의 고통도 가까이서 느끼는 기초의원은 지역의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안다. 한정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기초의회이다. 그런데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는 소속 정당의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고 하명만 기다린다면 지방자치 앞날은 어둡다. 정당의 거대 당론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주민과 지역을 대변하는 것에 중점을 뒀어야 한다. 자치단체사무를 감시하고 예산안을 심의할 권한을 의회에 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기초의원이 주민과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현안에 관한 민의가 잘 반영되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완벽한 지

방자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당리당락을 떠나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이 우선되려면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이 정당인이 아닌 무소속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주민 누구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에 소속된 주민들의 대표기구에서 벗어나야 대변자로서 주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의원들이 지지정당이 다른 주민들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지역문제를 사심 없이 논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분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끼리 총의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당 간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안을 도출해내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선거 때가 가까워져 오면 매년 그러하듯 기초의원들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자기 지역 당 협의회 위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 위원장에게 충성하는 구태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의원 공천제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 의견이 우세했다. 현직 기초의원들도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로는 권력의 카르텔과 부정부패의 고리가 이어지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소속될 수 밖에 없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만을 바라보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현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인천일보



“지역발전은 지방선거에 달렸다.”



서구의회 의원 **이 의 상**

지방자치는 주민 개개인이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내용이 되는 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방대한 사업의 의사결정에 주민들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를 뽑아 이들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한 것이다. 바로 이들이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됐다. 제도 시행 초기 지방의회 의원들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너도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수 많은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내기도 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리다며 자기 지역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지방자치가 활성화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지방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보기 좋은 모습이다. 경쟁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 30년, 요모조모 따져보고 결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관청은 행정정보를 공개했고 주민공청회가 활성화됐으며 높았던 단체장 사무실 문턱을 낮춰 개방했는가 하면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찾아가 소통하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본다.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민의수렴 노력, 주민 위주의 정책결정, 중앙정부를 의식하지 않는 소신행정, 탈권위적이고 친근한 모습 등은 임명직과 차별화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로 인해 위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한마디로 민선자치제 도입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군립하던 행정이 섬기는 행정으로 바뀌고 단체장과 지방의

원들은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당당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차기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 증가와 중앙 및 지방의 갈등심화 등으로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 지방의회나 자치단체가 실시한 선진국 비교시찰은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지역의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큰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잦은 해외연수는 선진국 연수를 빌미로 관광이었다는 비난과 함께 구구한 억측으로 주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시대 구현을 위해 독창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확보 실현을 위해 기업적인 경영마인드 도입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정책으로 담아 추진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해주길 바랄 것이다.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실시되는 점에서 각 정당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결과에 향후 정국주도권 확보 및 개혁 드라이브 성패가 걸려 있다고 판단해 의석 확보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여 과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앞으로 8개월 남아있는 지방선거에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청렴한 인사를 선택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선거를 통해 뽑아준 자신들의 대표가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활동했는지 평가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 출처 : 경기신문

“다가올 국민의 선택, 이런 후보는 안 된다”



서구의회 의원 김미연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적임자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 3월 9일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남아 있지만 선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많았던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압축됐고, 압축된 후보자들과 지지세력이 힘을 보태면서 선거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모두가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후보자나 지지세력들은 자기 편이 승리할 것처럼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것을 정치인이나 정당 가입자를 빼고는 많은 유권자들은 잘 모른다. 정치 감각이 둔해서가 아니라 정치판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대안보다 상대 후보를 헐뜯는 일에 올인하면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유권자가 많을 수 있다.

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발표돼야 한다. 국민의 행복에서 벗어난 방법은 방법을 위한 방법밖에 될 수 없다. 늘 그래왔듯이 선거 때가 되면 자기만이, 그리고 자기가 속한 정당 후보만이 귀함을 갖춘 인물이라며 표를 달라고 하니 유권자들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한다는 정치권의 모습이 되레 정치불신을 팽배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많은 이들이 이번 대선정국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라고 한다. 그만큼 이번 대선은, 또 정치하는 것은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고 공정이라는 것이 기본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대 후보를 헐뜯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국민 앞에 평가받는 장이 돼야 할 것이기다. 하지만 현재의 대선정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의 개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등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 이제는 대선정국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 줄 수 있는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 과거처럼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진영의 후보만이 대단하다는 식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는 선거라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게끔 중용하는 선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대선은 최선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게끔 해야 한다. 그것이 각 후보자와 캠프 지지세력의 책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마타도어식 선거가 아닌 정책 대결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국가 경영능력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을 중시하며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누군지를 평가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불과 5년의 만측으로 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가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는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경륜과 능력, 정책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리당략보다는 민생 현안과 산적한 난제를 풀어줄 인물, 현란한 말잔치보다는 실질적 사회 발전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또다시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 자명하다.

내년 대통령선거는 미래를 위해 시대적 과제를 설계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며 민주적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시대적 선거풍토라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지고 제대로 된 후보를 가려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누가 나라를 걱정하고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후보인지 눈 크게 뜨고 찾아보자. 2등은 소용없는 선거지만 1등하겠다고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유력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일삼는 후보에게 표를 쥐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 대결이 중심이 되는 선거, 마타도어식 비방과 음해가 없는 선거, 결국 정치권이 잘해야겠지만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 따끔한 경고를 해 줘야 가능한 일이다.

김명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화합하는 의회’ 실현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명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과 불로대곡동은 다양한 개발 이슈로 약동하는 지역이다. 또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노령화, 등하곳길 안전 미비, 골목상권의 위기 등 한계점들을 보여왔다. 김명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검단동과 불로대곡동의 특성을 냉정히 분석,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의정 행보를 펼쳐왔다. 아울러 청년 정치인으로서 패기와 추진력을 발휘해 의회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바로 의회 의장 선출 과정을 후보등록제로 개정, 매번 진통을 겪어온 원구성의 악순환을 끊어낸 것이다. 이렇게 김 위원장은 의회 안팎에서 거둔 일련의 성과를 통해 구민의 공복이자, 서구의회의 선진화를 이끈 청년 기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하천정비·등하곳길 안전설비 확충 등 지역구 현안 해결

김명주 위원장은 제8대 의회에 등원 이후 지역개발·조례입법·의회 선진화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둔 ‘불꽃초선’이다. 그는 과거 20대 국회에서 신동근 의원(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도와 술한 지역구 민원을 다루면서 정치적 식견을 넓혔고, 생생한 민원 현장에서 직접 구민의 아픈 곳을 보듬고자 출사표를 던졌다.

“국제로타리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덕분에 이웃의 애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터전인 서구에서 흐르는 4대 하천의 토사문제와 곳곳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비효율적인 보도 시설물, 통행을 방해하는 가로수 등은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죠. 저는 제8대 서구의회 등원과 동시에 일련의 민원 해결에 착수하였습니다.”

인천 서구 4대 하천은 ▲공촌천 ▲심곡천 ▲나진포천 ▲검단천이며, 특히 검단천은 김명주 위원장의 지역구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생태학습장과 연꽃 습지 조성을 목표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과거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검단동 내 각지의 보도에 공사 관련 시설물이 설치,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했던 당시에도 김 의원의 추진력이 빛을 발했다.

“무거운 짐이나 유모차를 끌고 보도를 걷는 일은 그 자체로도 힘든데, 중간에 구획정리 공사로 인한 안전 시설물이 가로막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켰었습니다. 이번에 1차 개선 작업을 진행해 민원이 제기된 보도의 폭을 넓히고 사거리를 둘러가는 데크를 설치해 구민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암 경서동 산책로 등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도교에 번성한 아카시아 나무가 구민의 보행에 장애물이 된다는 민원을 접수, 공원녹지과가 조치하게 했으며 저도 도구를 챙겨 가지치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하천과 주변 산책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 경제 활성화 앞장

또한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올해 초부터 지난 6월24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7개소를 지정 완료한 바 있다. 일곱 번째 골목형 상점가



는 ‘검단 중앙 골목형 상점가’로서, 지정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적극적인 의정 행보를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검단 중앙 골목형 상점가는 앞으로 컨설팅 지원사업, 공동마케팅, 공동환경개선사업, 지역공동체 협업사업,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소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고, 나아가 골목길에 활력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서구의회는 구정과 협력해 든든한 골목 경제 평생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농복합도시와 원도심 한계점 동시에 품은 검단·불로대곡동

김 위원장의 지역구인 검단동과 불로대곡동은 김포시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면서 상권이 자생한 지역이다. 따라서 도농복합의 특성과 함께 체계적이고 일관된 도시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조성된 구도심의 성격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냉정히 분석, 실현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실천해왔다.

“검단동과 불로대곡동은 제 유년시절 추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행복권 증진을 위해 지역 발전을 주된 의정 노선으로 잡되, 명맥을 이어온 전통과 미덕은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또 저는 6년간 불로중학교 운영위원장직을 맡으며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을 확충하고, 주요 건물 목을 스마트 횡단보도로 교체해 구민 안전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모두 달성했습니다.”

또 그는 쓰레기 재활용 시설이 미비한 단독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어린이 물놀이장을 유치해 청년인구 유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장 후보 등록제 실현, 원구성 초기 파행 악순환 끊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격 가결을 주도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향후 의장과 부의장 선출 시, 사전 후보자 등록과 정견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후보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을 후보자등록 선거방식으로 변경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간 서구의회는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해 정견 발표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일명 ‘교황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매 임기 의장단 선출 때마다 파행을 겪어왔죠. 특히 하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는 선출된 여러 지자체의 의장들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의 제명 처분을 받았 습니다.”

원구성 과정에서의 파행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되는 현상으로서,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김 위원장은 악습을 끊기 위해 후보자등록 선거방식을 강력히 주장했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9대 의회부터는 보다 순탄한 원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해 의장·부의장 선거제도가 새롭게 개선됨에 따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보를 등록해 자신의 공약이나 약속을 밝히고 지켜나가는 과정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것입니다.”

향후 김 위원장은 강남 직결이 불발되면서 소외된 검단·불로대곡동 주민들의 뜻을 수렴, 수도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원안 추진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검단신도시와 불로지구를 통과하는 인천2호선 연장선의 역사 1개소를 추가, 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시의원, 인천광역시와 서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GTX-D노선의 원안과 인천2호선 연장선 검단 역사 추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출처 : 뉴스리포트

심우창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통·협치’로 인천 서구 발전 견인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복지 정책 실현

심우창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복지도시위원회에 몸담으며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심 의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소통하며 구민의 삶에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고자 선행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기본적 가치를 담은 장애인과 노년층에 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낼 수 있었습니다.”

심 의원은 최근 발의한 조례안 제정 과정에 관해 설명하며 최초의 의미에서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서구의회 의원
심우창

심우창 의원은 백전연마의 3선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 추진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 성과로 강력한 의정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서구민을 위한 참된 일꾼을 자처하는 그는 다수의 민생 조례를 발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중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심우창 의원은 “구민의 부름에 응답하며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며 일하는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민생안정 도모하는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

심 의원은 서구의회의 유일한 3선 의원이다. 그는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여·야의 협치를 이끌며 유기적인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서구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그 중 도시정비사업 이면에 산적한 민원에 집중하며 원도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공원 및 녹지 조성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숙원 사업을 이뤄냈다. 또한 임기 내 연속성 있는 입법으로 묵은 현안을 해결하기도 했다.



“관내 학부모님들과 지속해서 만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부금을 확보해 학교 체육관 옥상 방수 공사나 도서관 확장공사, 컴퓨터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방법용 CCTV를 설치해 안심 통학로 귀갓길을 조성했습니다.”

심 의원은 가장 보람있는 의정 성과로 나진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꼽았다. 친환경 생태하천과 함께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 주거 환경 개선을 물론, 자연 보전에 대한 뜻을 실현했다. 그는 “당하 1호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비롯해 매립지 특별교부금 18억 5천만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내 게이트볼장도 준비했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하는 의원, 일하는 의회 만들기 집중

심 의원은 인천 서구 의원 연구단체인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포럼’에 다년간 참여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급속한 도시화로 우리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서구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자 한다.”로 전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근현대사적 의미와 학술 가치가 있는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몽골·베트남의 현지 한인회와 협력을 맺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저변 확대에 나섰습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낡은 규제와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데에도 앞장 섰다. 4개월 간 총 249건의 조례

를 소관 부서와 나눠 검토하고, 기업 경영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그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구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술선수범의 자세로 구민 위해 봉사할 것

심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겸손하고 모범적인 언행은 물론 지역을 위해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도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투철한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중진 의원으로서 상생과 협치의 가치를 전하며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이다.

“오직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는 ‘초심’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리 당론에 치우치지 않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 실천에 옮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심 의원은 남은 하반기 임기 동안 지역의 역점 과제 수행에 매진할 뜻을 전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비롯해 광역교통망 확보, 교육·문화·환경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그는 “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던 지난날처럼 수도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인천 서구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 정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출처 : 뉴스리포트





“검단산단 대기환경 개선사업, 전국 모범사례 돼야”



서구의회 부의장
최규술

최규술 인천 서구 구의원

“아스콘 공장, 벤조(a)피렌 제거장치 의무화” 주장

“실질적 지원과 지속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할 것”

인천시 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22일 최규술(51) 구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아스콘 공장 환경단속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벤조(a)피렌’을 뿜어대는 아스콘 공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당시 최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스콘 공장들이 벤조(a)피렌 제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스콘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끊임없이 악취와 분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실

제로 검단일반산업단지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오류동 금호마을 주민들은 2012년부터 아스콘 공장 이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6월에 검단산단에 들어서 있는 아스콘 공장 11곳을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스콘 공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최 의원의 ‘아스콘 공장의 벤조(a)피렌 제거장치 의무화’ 주장이 반영된 셈이다. 최 의원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방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겠다.”며 “그동안에 쌓여있던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아스콘 공장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벤조(a)피렌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는데.

“아스콘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벤조(a)피렌은 1급 발암물질이다. 전국적으로 벤조(a)피렌이 검출되는 인근 지역에서 74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아스콘 공장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을 내뿜고 있는 셈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없으면, 벤조(a)피렌이 여과없이 배출된다. 이는 아스콘 공장들이 벤조(a)피렌 제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재 전국 최초로 검단산단의 아스콘 공장 11곳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아스콘 공장 환경개선사업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스콘공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소극적인데.

“전국에 깔려있는 아스콘 공장은 약533개이다. 이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갖춘 곳은 약40곳에 불과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최대 4억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건강이다. 아스콘 공장에 대한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규제와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지자체와 기업이 아스콘을 발주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설치된 아스콘 공장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벤조(a)피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단산단이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는데.

“현재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a)피렌을 완전히 제거하고, 포름알데히드와 벤젠도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돕는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 서구가 검단산단의 아스콘 공장 11곳을 대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들

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국비 32억원과 지방비 26억원이 투입된다. 아스콘 공장들은 설치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스콘 공장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시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 부착하게 된다. 이는 상시적으로 지자체의 점검과 관리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아스콘 공장에 대한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은 물질과 악취로 구분된다. 현재 물질과 악취를 단속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다. 이를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감독해야 적절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아스콘 공장을 관리·감독하려면 윈-스톱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 장비와 인력 확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불시에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게 되면, 이번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아스콘 공장들도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 출처 : 시사저널





“나의 주변을 세심히 돌아보면”



서구의회 의원
김미연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기쁨 보다 밝고 행복한 공동체 될 것

주민을 대표해 지역을 위한 일을 하는 기초의원이 되어보니 보통의 시민이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몰랐던 것들이 많았고 놓치고 살았던 것들도 많았다.

보통 사람으로 살았을 때도 나의 주변을 세심히 돌아보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의원이 되어보니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사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민이 있다. 나와 같은 여성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가정형편과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이였다.

그분의 집 앞에 있는 상수도 뚜껑이 노후된 것은 물론이고 뚜껑 자리가 주저앉아 구덩이가 생겼는데, 그 근처에서 짐을 옮기다가 구덩이에 빠져 크게 다친 상황이었다.

주변 분들에게 연락을 받아 급하게 현장을 찾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극구 사양을 하기에 주변 약국에서 진통제와 파스 등 상비약을 사다 드리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도 왕왕 연락하며 안부를 나누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분께 장문의 카카오톡이 왔다.

불편한 몸과 계속된 건강 악화로 근로 능력이 없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장기간의 통원 치료로 병원이 싫어 진통제를 먹고 버텨왔고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병원 진료 기록이 한동안 없다는 이유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가뜩이나 힘든 삶 속에서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현실임에도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

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을까.

서구청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급히 알리고 현장을 방문해 주민을 만나 민원 청취를 비롯한 상황 파악을 하게 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하게 하는 등 지자체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수정할 수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그분은 빠른 시일 내에 얼굴을 한 번 보자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다.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에 빠진 주민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진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에 이분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등 어려움을 겪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됐다.

나의 주변을 세심히 돌아다보며 이분을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더욱 주변을 돌아다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럴 때 보람을 느끼며 부끄럽지만 나에게도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사각지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돕는데 힘을 써보고자 한다.

우리 경기신문 독자들께서도 바쁘고 힘겨운 나날 속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잠시라도 주변을 돌아다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밝은 세상,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는다.

▲ 출처 : 경기신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직개편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오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집행부의 도시 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 연계성 및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3차 조직개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는 임시회이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021년도 제3차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조례안 심의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구의회 의장(송춘규)은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전략적이고 일관성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 심의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2021. 7. 5.

인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선일보 구독 취소 결의안』채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제2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진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선일보 구독 취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선일보 구독 취소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본회의 진행 중 자리를 이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진식 의원은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조선일보는 6월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이러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태도에 분노하며 조선일보 구독을 취소하고 책임자 처벌과 보도 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정진식 의원은 “조선일보는 인천시의회에서부터 이어진 우리 서구의회의 구독취소가 가지는 의미를 깊게 새기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2021. 7. 6.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
제2차 정례회의 개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대표자 최규술)』은 7월 13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기타사항과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자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연구용역 과제 및 세부 내용,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날 최종 선정된 과제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규술 대표의원은 “우리 서구의 뿌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중심으로 연구해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더 가치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단체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구단체에는 최규술 대표의원을 비롯한 심우창, 이의상, 김미연, 최은순 의원 총 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1. 7. 13.

인천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
‘HELLO 릴레이 챌린지’ 참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HELLO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HELLO 릴레이 챌린지’는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서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모 필수 착용과 2인 이상의 탑승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춘규 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그에 맞는 안전 수칙도 잘 지켜 안전사고가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후속 챌린지 주자로 김성해 연서구의회 의장,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2021. 7. 16.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대표의원 김미연)는 8월 30일 의원간담회장에서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 실태조사 및 전승 대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는 서구지역 전통 민속놀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채보(악보 구성), 전승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를 입법 활동 및 정책 제언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올해 6월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김미연 대표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최종보고회는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강남규 의원, 최규술 의원, 최은순 의원을 비롯하여 서구청 및 서구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추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진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미연 대표의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용역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음에도 내실 있게 연구를 진행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지역 문화자원으로서의 전통 민속놀이 전승 방안에 대한 연구는 서구만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서구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 8. 30.

인천서구의회, 9월 3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임시회 개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진행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9월 3일,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먼저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약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강남규 의원이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 및 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상정 안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을 최종 심의하였다..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마련과 예산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구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 9. 3.

인천 서구의회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결의안』이 9월 3일 개최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강남규 의원을 대표로 인천 서구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결의안은 지난 30여 년간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 서구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내용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이 2025년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규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근거하여 이른 시일 안에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함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후진국형 쓰레기 정책인 수도권매립지는 가히 ‘야만적인 정책’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겁한 침묵’을 멈추라”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지금 당장 선언하라”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길은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며, 지금 당장 매립지 종료에 대한 사전 준비의 모습을 보이고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국가 쓰레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1. 9. 3.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서구의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 및 예방적 관리 촉구 의정 자유발언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의원은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발달장애인 사망 사고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구 복지기관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대안을 제시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먼저, 아동·노인·장애인 분야의 서구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민·관의 협력하에 지속적인 관리 및 불시 방문 조사, 시설 이용자 등과의 대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미연 의원은 종사자들의 교육 관련 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번과 같은 사건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구 자체에서 시설 분야별 특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 추천자 및 서구 구민 추천자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특별조사위원회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등 학대 방지를 위해 조속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서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 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부터 ‘전수조사’하여 문제점을 바로잡고 대응책을 수립한다면 준비된 복지 도시 서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1. 9. 3.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청주시 비교시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대표자 김미연)가 지난 9월 14일 충북 청주의 공예비엔날레 등을 방문하는 비교시찰을 실시했다.

김미연 대표자를 포함한 총 6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 수립 및 인천 서구만의 특성화된 문화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작년 7월에 설립되었다.

이번 비교시찰에서 의원들은 공예가 지닌 일상성과 예술성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동시대인들의 정서를 읽고 감성을 표현하는 문화행사인 청주 공예비엔날레를 방문하여 관계자 등으로부터 행사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청취 후 인천 서구의 여러 행사와 비교하여 서구 정책에 연계하기 위한 방향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청주 한국공예관, 청주생활문화센터 등을 시찰하는 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김미연 대표자는 “우리 연구단체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의회가 함께 한 연구단체”라고 하며, “인천 서구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우리 서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석하고 서구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서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 9. 1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남규)는 지난 9월 15일 국회 앞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현장에는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인 강남규 의원(위원장), 김명주 의원, 이순학 의원, 심우창 의원, 정진식 의원, 최은순 의원을 비롯하여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신동근 국회의원과 이동학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막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대표의 연대 발언과 강남규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현재의 매립 방식은 미래 세대에게 쓰레기 땅, 쓰레기 산을 물려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친환경적 소각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의 자리가 단순히 지역만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남규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서구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의 절반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인 2025년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즉각 선언할 것과 폐기물 발생지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기본법을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2021. 9. 15.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환경정의와 공정의 실천이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과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쓰레기 관리정책과 서울시, 경기도의 쓰레기 문제 인식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인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는 가히 '야만적인 정책'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겁한 침묵'을 멈춰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주민들은 세계 최대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과 생활권,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권자인 인천 서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매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그 인근에 난립한 폐기물 전처리업체 등으로 인해 각종 악취와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 서구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인근 지자체는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인 2025년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인천 서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들은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방향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선진화 즉,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폐기물 감량을 극대화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사용·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남은 쓰레기는 친환경적으로 소각하여 소각재만 매립하는 정책이 정답일 것입니다.

선거는 우리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토론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정책을 담아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여전히 보상과 인센티브를

내걸고 '매립지 연장'을 강요하고, '매립지 종료 문제'를 지자체 간의 갈등 구조로만 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간 환경적 희생을 강요받아 온 상처 난 서구 주민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연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처리 원칙이 답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인천시의 노력처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지처리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천시와 서구의 노력이 옳은 길이며 바른길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발생지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발생지처리 원칙이 아니면 인천 서구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을 통해 인류가 배운 것처럼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더 이상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 할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양보와 타협 없이 그리고 지금 당장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준비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다시 한 번,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즉각 선언하십시오.

또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기본법을 이행하십시오.

끝으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대전환의 시대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2021. 9. 1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 지역 공동체 협치 발전 연구회」 삼척시 비교시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서구 지역공동체 협치 발전 연구회(대표자 김동익)'가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구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의 비교시찰을 실시하였다.

대표자인 김동익 의원과 서구의회 의장인 송춘규 의장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의원들과 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협치발전 연구회'는, 주민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공동체의 협치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난 4월에 설립되었다.

이번 비교시찰 첫째 날은 삼척시 의회를 방문하여,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관광자원 활용 사례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교류하고, 현실 접목 가능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양도시 간 상생 발전을 이루자는 공통된 의견을 확인했다.

또한 천만송이의 장미가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량을 자랑하는 삼척시의 장미공원을 방문하여 인천 서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 해상 케이블카 등 삼척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나룻골 감성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의 소득 창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공동체센터와 체험주택 운영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서구의회 의장인 송춘규 의장은 "환대해 주신 삼척시 의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직접 삼척시를 방문하고 정책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어떻게 삼척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손꼽히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인천 서구와 삼척시가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회의 대표인 김동익 의원은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지역공동체 협치 발전연구회 의원님들의 서구의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강한 열정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또한 "서구 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향성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선진의회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 9. 29.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면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남규) 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9월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신창현 신임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서구의회 의원들은 SL공사에 인천 주민, 특히 서구 주민들의 2025년 매립지 종료에 대한 염원과 심정을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서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환경과 갈등조정 전문가인 신창현 신임 SL공사 사장께서 환경부에 잘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SL공사가 운영하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서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실현을 위한 상생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신창현 신임 SL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및 수영장 등의 주민편의 시설의 운영을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이며, 가능하다면 서구 주민들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상생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장에 3선의 심우창 의원과 함께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출신인 최은순 의원이 부단장을 각각 맡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강남규 위원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서구의회도 SL공사와 서구 주민들이 상생의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2021. 9. 30.

인천 서구의회 10월 12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임시회 개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의 등 진행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가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먼저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어서 10월 19, 20일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0월 21일 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10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서구의회 의장(송춘규)은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알차고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 10. 1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이의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이의상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및 지방자치의 날(21.10.29.)’를 맞이하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1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의상 의원은 인천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서구 지역공동체 협치발전연구회’ 위원으로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자발적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의상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더 열심히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늘 초심을 되새기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장을 수여한 송춘규 의장(인천대표회장)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구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친 이의상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 10. 20.

인천 서구의회,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은순 의원이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2021년 6월경부터 아프간 일대에서 일어난 미국-아프간 전쟁 후 아프간 전역을 비롯하여 지난 8월 15일 수도 카불까지 장악하면서 '이슬람 수장국' 재건을 선포하며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레반 무장세력의 총격을 받고 무고한 생명을 잃었고,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 민족을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과도 내각을 구성했다.

이에 최은순 의원은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탈레반 정권이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분야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21. 10. 21.

인천 서구의회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인천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인천 서구의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인천시 서구의회는 지난 10월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인갑 의원(더불어민주당·신현원창·가정1,2동)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는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인천의 부족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수준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0월 9일 김교흥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및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인천대는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기관, 시민단체, 학교, 기업체, 공직사회 등이 함께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인갑 의원은 "위드코로나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의대 설치와 함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인천의료원을 활용한 교육·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3.0명보다 낮은 상황이다. 특히 서울 4.4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1. 10. 21.

인천서구의회 송춘규 의장,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 종합 준공식 참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은 지난 10월 26일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 종합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단일단지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설비용량 8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 준공으로 수도권지역 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청라지역 4만4천 가구에 온수 공급이 가능해지며, 하루 97만 명 호흡 가능한 공기 정화로 서구 지역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송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구는 신인천빛드림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 구축과 지난 7일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 착공으로 미래수소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서구의회에서도 수소경제 육성과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 10. 26.

인천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김해시 비교시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의원연구단체(대표자 김미연)」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시를 방문하는 비교시찰을 실시했다.

김미연 대표자를 포함한 총 6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의원연구단체」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의회가 함께 한 의원연구단체로 문화예술 도시 조성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 수립 및 인천 서구만의 특성화된 문화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작년 7월에 설립되었다.

이번 비교시찰 첫째날은 김해시 문화도시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해시의 고유한 문화자산의 특화를 통한 문화도시 구현 및 다양한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서구의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둘째날은 가야의 거리, 해은사 및 분산성을 방문하여 역사문화도시 김해시 시민의 삶과 맞닿은 역사적 가치를 경험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김미연 대표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서구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 10. 27.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민족 뿌리 문화 연구활동 포럼」 안동시 비교시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대표자 최규술)」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안동시를 방문하여 문화 시설물의 보존관리 실태와 운영상황을 비교하고,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문화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비교시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간 중단하였던 대외 연구 활동을 재개하는 계기로써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하회마을, 도산서원 등을 전문해설사의 안내로 답사하고, 한지공장 및 전시관을 방문하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의 상품화와 문화관광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의 대표 최규술 의원은 “이번 비교시찰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우리 서구도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인문·자연적 특성들을 최대한 살린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전통문화유산을 안정적으로 보존·전승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 10. 3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지난 11월 4일 최근 개관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전시체험 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지난 10월 29일 정식 개관을 했으며,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서부터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난을 체험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안전체험관 내 화재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등 전시체험 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8개 체험존, 22개 체험실, 48개 체험 종목에 대한 세부 교육 내용 등 시설 운영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체험관 운영 직원들을 격려했다.

송춘규 의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천시민과 학생들이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체험관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전체험관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체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이 함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 11.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영장 시안전관리시스템」 현장체험 실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승일 의원)는 지난 11월 12일 수영장 시안전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체험하고자 청라문화센터 수영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수영장 시안전관리시스템은 수영장 내 실시간 사고 확인 및 현황 정보를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되며, 지능형 감지를 통해 이상행동시 신속한 사고를 알림으로써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이다.

이날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진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함께하였으며, 먼저 안전관리시스템의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은 후 안전관리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영 강사 투입을 통한 위험상황을 연출하여 위험 상황에 따른 경보 작동 및 CCTV 검출과정을 확인하는 등 현장체험을 통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실제 현장확인을 통해 수영장 시안전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자 이번 현장 방문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며, “무엇보다도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더욱 확대 운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여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2021. 11. 12.

인천서구의회 11월 19일부터 26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개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진행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가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2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연설 및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망언 규탄 결의안' 등이 있었고, 11월 22일부터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12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하였다, 이어서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였고, 1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구의회 의장(송춘규)은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 11. 19.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망언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망언 규탄 결의안」이 11월 19일(금) 개최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인천 서구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결의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이 지난 11월 4일 한 언론 칼럼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천시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며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서구 주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규 의원은 “환경전문가인 신창현 사장이 환경정의를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인천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러한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서구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서구 주민들의 매립지 종료 노력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21. 11. 19.

인천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 「인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11월 월례회의」 주재



「인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송춘규 회장(인천 서구의회 의장)은 지난 25일 인천 서구의회에서 인천 8개 군·구의회의 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월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9일 담양군에서 개최한 제240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된 ‘여행선 세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에 대해 관련기관에 후속조치를 건의하는 등 결과보고 청취가 있었고,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군구 조례 및 규칙 등 제·개정 내용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춘규 회장은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인사권 독립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얼어붙은 민생경기 극복을 위한 사업들이 내년 예산심사 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2021. 11. 26.

인천서구의회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지난 12월 2일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동의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주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서북부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 불로 연장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올해 3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미반영됨에 따라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장 노선을 줄이고 정거장을 2개로 줄이는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으로 독정역에서 일산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 사업으로 먼저 추진될 사업이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사업으로 바뀐 것"이라며, "지역의 활력을 기대했던 불로지구 주민들과 검단신도시 2단계 지역 입주민들에게 지하철 이용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동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책 간담회를 열어 행정절차 단축에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상황으로, 기획재정부의 의지에 따라 통합사업으로 변경된 만큼 기획재정부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초래된 지역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업 시행 시 독정역에서부터 연장되는 검단 구간을 우선 개통하여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서북부 주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21. 12.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 김명주, 김미연, 한승일 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



지난 12월 3일 열린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구의회 김명주, 김미연, 한승일 의원이 구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김명주 의원은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검단출장소 조직 확대 및 청사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검단 지역의 폭발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조직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청 조직의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검단지역 조직을 확대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사의 이전은 현 청사의 활용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단지역 내 공용 청사 부지 중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적정한 곳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구정질문에서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 및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불로동 주민들을 언급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일산대교 무료통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김미연 의원은 드론 스마트패트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 드론 사업 시행 업체 대표를 서구시설관리공단 비상근직 이사로 임명하고 이 업체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건의 수익계약이 이루어져 많은 오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드론 과업 부서들 중 내부 논의를 통한 조사에 의하면 당초 1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에서 현재 그것의 3배인 3억이 지출된

것과 금년도 사업평가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으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지적했다.

또한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는 항공, 환경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공고가 되어있던 것과 달리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5명 중 4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 또한 합목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드론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과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 스마트팜트룰 사업이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사업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재현 서구청장은 드론 업체 대표와 관련된 5건의 수의계약 내용은 오늘 처음 접했으며,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과정에서 10개 부서에 22개의 과업이 추진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지적하신 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으며, 각 단위사업별 세분화된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다음으로 한승일 의원은 구의 재정확충 방안과 향후 운영 계획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철저한 체납액 관리를 통한 재산세 확보, 예산 편성 시 심사위원회, 집행부, 의회의 3중 심사 등을 언급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관행적 예산편성에서 탈피하고 신규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일몰제 도입 여부 검토 등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한승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내의 사업소에 주민세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다.



2021. 12. 3.



의정포토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7. 6.]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7. 6.]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7. 6.]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 제2차 회의 [2021. 7. 13.]



제3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2021. 8. 3.]



전체의원간담회 [2021. 8. 20.]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8. 20.]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21. 8. 30.]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9. 3.]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9. 3.]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9. 6.]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9. 6.]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9. 6.]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9. 6.]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9. 7.]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9. 7.]



의정포토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9. 8.]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9. 8.]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9. 8.]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9. 9.]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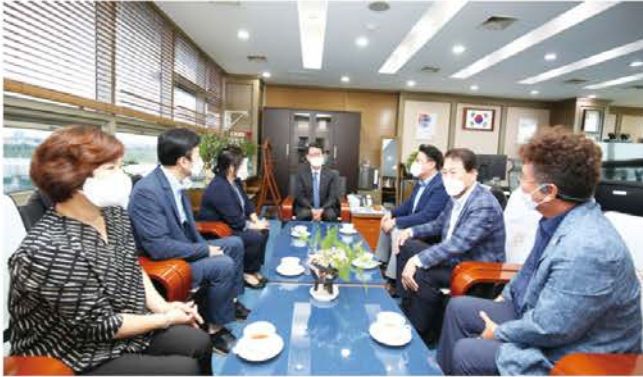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청주공예비엔날레 비교시찰 [2021. 9. 13.]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기자회견 [2021. 9. 15.]



인천 서구 지역공동체 협치 발전 연구회 삼척시 비교시찰 [2021. 9. 27.]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SL공사 사장 면담 [2021. 9. 29.]



자치행정위원회 부서(공동체협치과) 간담회 [2021. 9. 30.]



전체의원간담회 [2021. 9. 30.]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9. 30.]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10. 12.]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0. 13.]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0. 13.]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0. 14.]



의정포토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0. 14.]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14.]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0. 15.]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0. 15.]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15.]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0. 18.]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0. 18.]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18.]



오류왕길동 블루텍 주민들과의 간담회 [2021. 10. 20.]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10. 20.]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0. 20.]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0. 20.]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0. 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이의상 의원) [2021. 10. 20.]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10. 21.]



제3회 다산의정대상 수상(심우창 의원) [2021. 10. 26.]



의정포토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 안동시 비교시찰 [2021. 10. 28.]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현장방문 [2021. 11. 4.]



전체의원간담회 [2021. 11. 5.]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1. 5.]



자치행정위원회 「수영장 AI안전관리 시스템」 현장체험 실시 [2021. 11. 12.]



제2회 정서진 드론페스티벌 [2021. 11. 13.]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착공식 [2021. 11. 17.]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착공식 [2021. 11. 17.]



인천 서구 석남이음숲 수경시설 개선사업 준공식 [2021. 11. 17.]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1. 11. 19.]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1. 19.]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2021. 11. 22.]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2021. 11. 22.]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2021. 11. 22.]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 연구응역 최종보고회 [2021. 11. 22.]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2021. 11. 23.]



의정포토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2021. 11. 23.]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2021. 11. 23.]



경원초등학교 에코스마트팜 조성 개관식 [2021. 4. 28.]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2021. 11. 24.]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2021. 11. 24.]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2021. 11. 24.]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2021. 11. 25.]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2021. 11. 25.]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2021. 11. 25.]



인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11월 월례회의 [2021. 11. 26.]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2021. 11. 26.]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2021. 11. 26.]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2021. 11. 29.]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2021. 11. 29.]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2021. 11. 29.]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강평] [2021. 11. 30.]



의정포토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강평] [2021. 11. 30.]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강평] [2021. 11. 30.]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12. 1.]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2. 1.]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2. 1.]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2. 1.]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 목놀관 현장방문 [2021. 12. 2.]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12. 2.]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12. 2.]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구정질문] [2021. 12. 3.]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구정질문-김명주 의원] [2021. 12. 3.]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구정질문-김미연 의원] [2021. 12. 3.]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구정질문-한승일 의원] [2021. 12. 3.]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2. 6.]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2. 6.]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2. 6.]



의정포토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코로나극복 청라재즈콘서트 [2021. 12. 3.]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12. 7.]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2. 7.]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2. 7.]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2. 7.]



제6회 인천의정대상 시상식(한승일 의원) [2021. 12. 7.]



제1회 소상공인연합회 경영대상 시상식 [2021. 12. 7.]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2. 8.]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2. 8.]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2. 8.]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2. 9.]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2021. 12. 9.]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2. 9.]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2. 10.]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21. 12. 10.]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12. 10.]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13.]



제24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14.]

의회 본회의 방청 안내

본회의 방청 안내

- 방청절차 : 방청신청(신청서 작성)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 방청신청
 - 일반신청【개인】: 회의 개최일 의회사무국 방문
 - 단체신청【10인 이상】: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전화 문의 후, 회의 개최일 의회사무국 방문
- 방청문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연락바람
서구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032)560-6852】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의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바람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시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원 및 진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 원	진 정
정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이 문서로 희망사항이나 바라는 바를 진술하는 것	진정인이 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의회 의원에게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제출한 것
성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을 소개하는 의회위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 견서를 작성·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서에 진정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불수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와 국가,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연도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 기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문의는 서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60-5864)



인천 서구의회는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으로
희망차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www.seo.incheon.kr/family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서구청)

Tel. 032-560-5850~60 Fax. 032-560-2797